



인 역할을 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양자 간 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기틀로 삼았고, 이후 다자무역체제로 진화했다. 크루그먼은 GATT/WTO 제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세계 무역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매우 유익했다. 미국과 다른 곳에서 가장 거칠고 부패한 정치분야 중 하나였던 관세정책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깨끗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라는 가짜 주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부활시킨 것은 '나쁜 과거'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보복을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관세정책은 영향력 행사와 뇌물수수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결코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쁜 과거'로의 회귀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자유시장 이념에 책임을 묻는 '나쁜 크루그먼'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무역 개입주의를 표방하는 듯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강철과 알루미늄 관세인상을 주장)가 어떻게 그가 비난한 '트럼프식' 정실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www.aei.org/publication/kudos-to-paul-krugman-on-trade-for-the-most-part/>